

15. '95 人口・住宅 總調查 要約

資料提供：統計廳

‘서울사람’ 줄고 首都圈은 늘어 아파트 5년새 2배이상 증가 누락인구 많아 조사방법 문제

95년 센서스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빈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빈집 증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임은 물론 이농(離農)현상에 따른 도시 인구집중으로 교통난·환경오염·범죄증가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아파트를 많이 찾으면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총주택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거나,(수도권 인구집중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점등도 눈길을 끈다.

특히 90년조사 때는 「중복내지 부풀린」 인구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누락」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해지는 빈집 증가 추세

빈집이 36만 3천채로 전체 주택의 3.8%나 된다. 이 비중은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된 70년대만해도 1%대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무엇보다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일부 미입주아파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완공됐는데도 임자가 나서지 않은 지방의 미입주 아파트는 1만6천5백채(95년 10월말 현재)에 불과해 나머지는 대부분이 비어있는 단독 농촌주택으로 분석된다.

(단위 : 가구)

구분	주택수	빈집	빈집비 중(%)	구분	주택수	빈집	빈집비 중(%)
75년	4,816,413	82,244	1.7	90년	7,357,287	196,901	2.7
80년	5,434,176	115,296	2.1	95년	9,578,712	363,168	3.8
85년	6,271,265	167,055	2.7				

□헛갈리는 인구 통계

센서스에서 나타난 인구는 4천4백60만6천명인데 이는 주민들이 대답한 조사표를 단순히 잠정 집계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를 기초로 일반적으로 통계조사때 나타난다는 누락인구등을 감안해 실제 인구를 추정하는 데 이 숫자가 4천5백18만7천명이다. 그러나 내무부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집계한 작년말 현재 인구는 4천5백85만8천명으로 센서스 인구보다 무려 1백25만2천명이나 많아 인구집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게 한다.

통계청은 이에대해 주민등록인구는 중복 계산이 있는데다 사망통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중 상당수가 주민등록에 올라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센서스 인구도 85년 47만8천명(1.168%)누락, 90년 41만3천명 중복(0.961%)에서 95년에 85년보다 더 큰폭의 누락으로 왔다갔다해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한편 실제 인구를 말할 때는 통계청이 오차등을 감안해 추정한 인구를 사용하지만 인구가동 등의 추세는 센서스 결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여전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의 인구 비중은 낮아졌지만 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인구 비중은 90년보다 높아졌다.

전체 인구의 남녀 성비(性比)는 여자 1백명당 남자가 1백.9로 남자가 1명정도 많다.

□분가(分家)에 따른 핵가족화

전체 가구수가 90년보다 14.1% 늘어난 가운데 가구당 평균식구수(3.34명)는 90년(3.71명)보다 10% 줄었다. 부모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절반 아래로 처진 단독주택 비중

사람 사는 집을 기준으로 볼 때 단독주택의 비중이 60년 주택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절반 이하(47.6%)로 떨어졌다. 반면 아파트는 최근 5년사이 두배 이상(1백11.7%) 늘었고, 연립·다세대주택도 같은 기간 76.6%나 늘어났다.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